



PRESS RELEASE

GE, 알스통 전력 및 그리드 사업 인수 완료

2015 년 11 월 2 일, 프랑스 파리 - GE 는 오늘 프랑스 알스통의 전력 및 그리드 사업 부문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U,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20 여개 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이번 인수는 GE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 2014 년 GE 는 알스통의 전력 및 그리드 사업 부문을 123 억 5 천만 유로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2014 년 6 월 합작 회사 설립(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원자력), 거래 구조 변화, 가격 조정, 거래 종료 시의 순현금, 환율 등을 고려한 인수 가격은 97 억 유로 (약 106 억 달러)이다. 이는 10 월 중 사용된 약 6 억 유로의 운전 자본을 포함한 수치이다. GE 는 알스통 인수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2016 년에는 0.05~0.08 달러, 2018 년까지 0.15 ~ 0.20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E 는 인수 5 년 후 약 30 억 달러의 비용 시너지 효과와 견고한 인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스통 인수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배경은 GE 가 2014 년 4 월에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은 “이번 알스통 에너지 사업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GE 는 사업구조개편에 중대한 변화를 이루어 냈다. 알스통 에너지의 상호 보완적 기술, 인재, 글로벌 역량 및 공급 실적이 더해져 GE 의 산업 부문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GE 는 에너지 산업의 고객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기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GE 와 알스통의 이번 합병은 아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 한다.

- PSEG 수워런(뉴저지 복합화력발전소): GE 7HA 가스터빈 + 알스통 배열회수보일러
- 편자브 파키스탄 Bhikki (파키스탄 복합화력 발전소): 2 대의 GE 9HA 가스터빈 + 알스통 스팀 터빈
- 엑셀론 발전소 (텍사스 발전소): 4 대의 GE 7HA 가스터빈 + 4 대의 알스통 배열회수보일러
- 켐파크 (독일 레버쿠젠의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GE 9HA 가스터빈

또한, GE 와 알스통은 모두 아시아의 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에서 GE 7HA 가스터빈 2 대, 알스통 배열회수보일러 2 대, 알스통 증기 발생기 1 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알스통은 2 곳의 영국 원자로에 적용할 아라베예 스팀터빈, 중동의 보일러, 스팀터빈, 발전기, 청정석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인도의 참파 쿠루셰트라 (Champa-Kurukshetra) 프로젝트에 인도 최초의 800kV 고압직류송전 전력 변압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또한 GE 는 오늘 철도 신호 사업을 알스통에 약 8 억 달러에 매각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GE 는 계속해서 더욱 간소하고 집중화된 기업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알스툼 인수뿐 아니라, GE 캐피탈 사업 출구 전략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어 1,260 억불어치의 매각에 서명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Synchrony Financial)' 분사도 시작되었다. 최근 출범한 GE 디지털(GE Digital) 사업부를 통해 전사 디지털 역량을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산업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다. GE 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견고한 재무 성과를 내고 있다.

2015 년 12 월 3 일 투자자 업데이트 콜이 진행 된다. www.ge.com/investor.

추가적인 정보는 www.ge-alstom.com 방문.

###

GE에 대하여

GE 는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 기업(Digital Industrial Company)'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 및 솔루션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다. GE 의 산업 기계와 솔루션들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응과 미래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한다. "GE 스토어(GE Store)"라는 글로벌 지식 공유 체계를 통해 GE 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 지식을 전사적으로 활용한다. 인재와 서비스, 기술과 규모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 www.ge.com

한국에서는 1976 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상호 협력하며,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 1,400 명의 직원들이 발전, 석유와 가스, 에너지 관리, 항공, 헬스케어, 조명, 운송, 캐피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www.ge.com/kr, www.geblog.kr, www.gereports.kr)

문의

GE 코리아: 조병렬 전무 /정혜리 과장 (02-6201-3010/ 02-6201-4025)